

내일 프로야구 개막... 6개월 대장정 시작

정규리그 종료되는 9월 17일까지 팀당 144경기 · 팀간 16차전씩 총 720경기 진행



두산, 올해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 '최형우 가세' KIA, 두산 잡을 대항마로 떠올라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왔다. 올 시즌은 두산 베어스의 1강 체제 속에서 '가을야구'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017 타이타닉 KBO리그는 내일 오후 7시 잠실(한화 이글스-두산), 고척(LG 트윈스-넥센 히어로즈), 문학(kt 위즈-SK 와이번스), 대구(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마산구장(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에서 일제히 거행된다.

팀당 144경기, 팀간 16차전(홈 8, 원정 8)씩 총 720경기가 열리며 정규리그는 9월 17일에 종료된다.

지난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을 유지한 프로야구는 올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 속에서 정확한 비디오 판독과 함께 스피드 업 규정을 신설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각오다.

각 구단들은 저마다 지난해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 달여 간의 스프링캠프를 마친 후 2주 간의 시범경기를 통해 팀 전력을 정비했다. 이제 시작이다.

올해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은 두산이다.

두산은 지난해에 비해 전력 누수가 거의 없다.

두산의 강점은 안정된 선발진이다. 최강 원투펀치 더스틴 니퍼트와 마이클 보우덴이 견재할 것으로 보인다.

장원준과 유희관이 버티고 있는 선발진은 10개 구단 중 으뜸이다.

불펜의 핵심 정재훈이 수술로 이탈했지만, 이용찬, 홍상삼, 김강률 등 자원이 풍부하다.

막강한 타선도 두산의 자랑거리다. 민병현-김재환-오재일-닉 에반스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은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두산을 제외한 9개 구단 감독들은 타도 두산'을 외치고 있다.

KIA는 두산을 잡을 대항마로 거론된다. 최형우의 가세로 타선의 파괴력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선발진은 핵터 노에시와 양현종이 견제해다.

'파이어볼러' 한승혁의 존재는 전군만 마다.

다만 팻 딘의 활약 여부가 변수다. 스토브리그에서 거액을 쓴 LG 역시 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차우찬과 95억원에 계약하면서 기존 데이비드 허프, 헨리 소사, 류제국과 함께 강력한 선발진 체제를 구축했다.

LG의 정신적인 지주 박용택과 정성훈의 활약 속에서 김용의, 채은성 등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중요하다.

지난해 두산에 밀려 아쉽게 정규리그 2위,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친 NC는 설욕을 버리고 있다.

대체불가 에릭 테임즈와 수준급 투수였던 재크 스투어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나성범, 박석민, 이호준이 이끄는 타선 역시 막강하다.

투수진에서는 구창모의 약진이 돋보인다.

SK 역시 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동서양 야구에 정통한 트레이 힐만 감독을 영입하면서 기본기를 다졌다.

김광현의 공백을 메릴 켈리와 스카트 다이어몬드가 잘 메워주고, 윤희상이 부활에 성공해야 호성적이 가능하다.

염갑량이 없는 넥센은 시범대에 오른다. 프런트 출신의 장정석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신구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앤디 밴헤켄, 선 오설리반, 신재영이 제 기량만 발휘한다면 해볼만하다.

서건창, 고종욱 김하성 등 젊은 선수들이 이끄는 타선은 매 시즌 예상 이상의 잠재력을 꺼냈다.

한화는 일렉시 오간도, 카를로스 비야누에바, 윌린 로사리오 등 외국인 선수들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 5강 진입을 노리고 있다.

롯데는 사상 최고 금액인 150억원에 이대호를 영입하면서 타선의 무게를 더했다.

손아섭, 최준석과 함께 강력한 강력한 클린업 트리오를 구축해 이대호 효과로 분위기 쇄신을 노린다.

kt는 시범경기에서 7승1무3패로 1위를 차지했다.

전력은 여전히 약체지만, 하준호, 심우준, 김동욱 등 젊은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삼성은 시범경기에서 2승1무9패로 부진했다.

선수들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바꿔 활약 여부는 미지수다.

KIA로 옮긴 최형우의 빈 자리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보람상조배 전국중고남녀종별탁구대회

내달 2일까지 제55회 보람상조배 전국중고남녀종별탁구대회가 29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보람그룹을 비롯해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군산시탁구협회, 전라북도탁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군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중고남녀종별탁구대회는 중·고등 남녀 73개 팀 약 8백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중고등부 탁구대회 중 가장 큰 대회로 손꼽힌다. 경기 종목은 남녀 중고등부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경기로 진행되고 이번 대회는 2017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1차 선발전과 최종 선발전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회로서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군산에서 20년 만에 개최 되는 전국대회라 아주 뜻 깊은 대회라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참여되어 있는 군산 엘리트 탁구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선정 ·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 중 우수학교스포츠클럽을 선정,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 59개 클럽 중 학교 70개 클럽, 고등학교 36개 클럽, 여학생 66개 클럽 등 총 231개 우수학교스포츠클럽을 선정했다.

1개 클럽 당 160만원씩 총 3억7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학교스포츠클럽에는 전주 동북초 출신 기, 전리중 농구, 전주중앙여고 넷볼 등 전주지역 초·중·고 45개 클럽이 선정됐다.

군산은 군산푸른솔초 프리테니스, 군산제일중 축구, 군산기계공고 배드민턴 등 초·중·고 총 36개가 선정됐다.

익산은 이라부초 토틸, 익산중 탁구, 원광고 축구 등 초·중·고 총 42개 클럽이 선정됐다.

지원금은 지도 강사비, 볼 등 물품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사용하게 되며 교육지원청 리그대회와 도교육청배대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도 참가하게 된다.

전북체육회, 도민체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전라북도체육회는 29일 오후8시 전북체육회관에서 제54회 전라북도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청 체육정책과 관계자와 전주 MBC프로덕션 김차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차동 대표는 입장식은 물론 개폐회식, 성화봉송 등 도민체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도 체육회는 이번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안전사고 방지 등 모든 분야에서 부안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